



추가 금융완화 단행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은행(BOJ)은 지난 19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현재 70조 엔 규모인 국채 매입기금을 80조 엔으로 확대하기로 함.

- 추가 매입할 채권은 장·단기 국채 각각 5조 엔으로 기존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2013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임.¹⁾
 -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최근 3차 양적완화(QE3)를 결정한 것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일본의 경기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공감했기 때문임.
 - 한편, 금리는 현재 연 0.1%인 장기국채 입찰 하한금리를 철폐하고 회사채에 대한 기준금리는 현행 0~0.1%로 동결해 실질적인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기로 함.
- 일본은행은 이번 조치가 일본경제가 물가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.

■ 한편, 이날 시라카와 마사아키(白川方明)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경제 회복이 반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,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.

- 그는 애초 올 회계연도 상반기인 이달 말부터 일본 경제가 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장기국채 매입 방안은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음.
- 그러나 최근 닌텐도 사태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갈등이 양국 간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.

(아사히 외, 9/19)

1) 일본은행이 2010년 10월 자산매입기금을 통해 진행 중이던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장기국채 매입 규모는 29조 엔에서 34조 엔, 단기국채 매입 규모는 9조 5천억 엔에서 14조 5천억 엔으로 늘어나게 됨.